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한뜻'

도내 10개 기관·단체,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구성... 정책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지난 7월 29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천선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 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상덕),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 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진호), 부안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소장 전의령),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대표 송원),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대표 유인실),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이수인) 등 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는 2020년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 확산 네트워크 전북 포럼’을 계기로 전북권 5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인이 성평등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첫 출범했다.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성평등 인식 확산과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부안문화재단과 지난 3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도내 6개 문화재단 등 총 10개 기관 및

단체가 협력해 전라북도 지역 성평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 관계자는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재단과 예술인, 학계가 힘을 모아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유일하다”며, “앞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성평등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단 누리집(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www.jbct.or.kr)을 참고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무더위 식혀줄 시원한 소리한마당

남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1~15일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개최

본격적인 무더위를 시원하게 물리치고 여름밤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특별한 공연이 찾아온다.

해마다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 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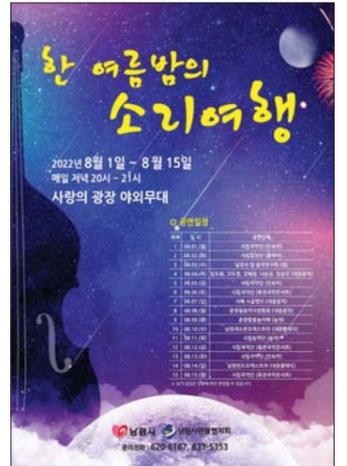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백기를 거친 후 3년 만에 재개되었다.

새롭게 찾아온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1일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남원시립합창단(클래식) △남원시립음악연구회(랩) △임도의·고도영·강혜원·나순금·임승근(대중음악) △사매시골밴드(대중음악) △춘향골 음악사랑협회(대중음악) △춘향골물놀이패(농악) △남원색소폰오케스트라(클래식) △남원시립농악단(농악) △남원윈드오케스트라(대중음악) 등 10팀의 출연진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일정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여름 휴가철 남원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남원의 대표적 인 여름철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시 관계자는 “더운 여름, 남원을 찾는 남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포스터

녀노소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한여름밤의 소리여행과 함께 시원한 여름밤을 느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회 섬진강·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 개최

순창군, 서양화·수채화·한국화·만화 애니메이션·풍경화 등 5개 부문 10월 4~28일 접수

순창군이 제8회 섬진강·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서양화와 수채화, 한국화, 만화 애니메이션, 풍경화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접수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원서 교부는 8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작품은 오는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등기우편이나 택배, 방문 접수를 통해 순창군 육천골미술관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1인 2개 작품 이내로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수상할 때 최고 수상작 1점만 시상하게 된다.

소재는 순창군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및 섬진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미발표작이어야 한다.

시상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각각 32점과 69점을 선정한다.

특전으로는 일반부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학생부 대상은 상금 50만원과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일반부 특별상 이상을 받은 작품은 순창군이 귀속한다.

특히 해마다 전국의 우수한 화가부터 일반인과 학생 등이 참여해 열리는 공모전을 통해 순창의 주요 관광지가 색다른 해석을 통해 화폭으로 표현되면서 지역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평이다.

아울러 전국의 재능있는 초·중·고등학생의 참가도 늘어나며 전문적인 그림보다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해 최근 트렌드에 걸맞은 재미난 작품도 많아져 공모

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공모전에 참가하는 일반인과 학생들의 작품 수준도 높아지면서 해마다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상작은 육천골미술관에 전시되면서 순창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있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수준과 다양함에 놀라고 있다”면서 “올해도 전국의 재능있는 학생과 일반인의 많은 참여를 통해 순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8회 섬진강·강천산 전국사생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만난 친구들'展 개최

나눔미술은행 사업 일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무상 대여·전시

익산예술의전당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익산예술의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나눔미술은행 미술관에서 만난 친구들'展을 9월 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모에 선정된 '나눔미술은행'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으로 대여·전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시는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 같은 전시회를 추진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관객과 내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24점과 익산예술의전당 소장품 3점, 지역작가 작품 6점을 엄선하여 선보인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미술은행 소장품과 지역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며 “문화예술 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교류하여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판목 HERO

“국립전주박물관서 국악 체험극 즐겨요”

11일 '가야고 티라노-황금똥의 비밀' 공연... 3일부터 선착순 신청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2시 박물관 강당에서 어린이 국악 체험극 '가야고 티라노-황금똥의 비밀'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악공연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등장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야금과 해금 연주, 율동 따라하기, 노래 부르기 등으로 구성, 관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국악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관람예약은 3일부터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jonju.museum.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입장인원은 최대 230명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특히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공연장 소독과 관람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시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연출하고 출연한 수준 높은 국악극을 통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가락을 느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즐거운 추억도 쌓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가야고 티라노-황금똥의 비밀'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